



<포도재배인과 무화과나무>, James Tissot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e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탈출 3,1-8 ㄱ.13-15

제2독서: 1코린 10,1-6.10-12

복음: 루카 13,1-9

청년 성가집 입당: 188

봉헌: 299

성체: 230

파견: 286

◆ 화답송



(후렴) 주님은 자비롭고 너 - 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포도 재배인 되기”

복음에 의하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참 나쁘다. 포도밭에 단한그루만 심겨지는 주인의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망치자루로 3년을 쓰다가 꽃아 놓아도 자란다.’는 무화과나무이기에 주인의 실망과 처벌은 이해할만하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인도 잘라 버리려한 이 나무를 한해만 더 그냥 두어달라고 청하는 재배인의 모습이다. 아마도 루카복음사가는 그 재배인과 예수님을 닮은꼴로 본 것 같다. 신자, 단체, 구역들 가운데는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매해 예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 열심히 공을 들였음에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다. 이 정도의 정성, 시간, 에너지면 열매를 보여줘야 할 텐데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화가 나곤 한다. 복음의 무화과나무 주인처럼.

어느 순간엔가 성과를 보고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본다. 몇 명이나 교리반에 안내했고, 소공동체 모임 참여자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교무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모습 속에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살아날 수 있는, 아직은 여리고 부족한 사람, 단체들은 뒷전이 된다. 거름을 줄 시간이 없다.

시집, 친정 식구들, 자녀들과 배우자, 그리고 가정, 직장과 동료들, 성당 등 우리 주변 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천지다. 이제 그만 잘라버릴까?

풍성한 열매를 맺은 나무보다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푸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재배인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재배인은 그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도 행복해한다. 바로 우리들 때문에 말이다.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체라는 거름을 흠뻑 먹어보자.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인 말고 재배인이 되는 훈련을 해보자. ♣

(성경맛들이기 계속)

황제 숭배 사상이란

황제 숭배 사상은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과잉 충성에서 출발하여 로마 제국의 왕을 신처럼 모셨던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사상이 도미시아노 황제 때에 와서는 황제가 스스로 하느님으로 자처하여, 자신의 신상 앞에 향을 피우면서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절을 하도록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황제 숭배 사상은 악마의 덫이었으며 수많은 치명자를 낳게 했다.

주된 관심사

저자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영광과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역사 안에 와 있지만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승리는 ‘아직’ 이 역사 안에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그리스도처럼 아직 악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리스도 사건의 빛속에서 당시의 상황과 하느님의 계시를 재해석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묵시록은 하나의 철학,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신학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묵시록의 내용을 인용하면, 그리스도는 홀로, 감추어진 비밀의 봉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악과의 오랜 싸움다음에 찾아올 선의 승리인 역사의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결국 역사는 사랑의 현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은 그리스도교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희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독자

묵시록의 수신인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1장 4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로마의 총독들에 의해 지배되던 도시에 속한 교회들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보다 요한사도의 사목적 배려를 더 받고 있던 교회로서 요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던 교회다. 그러나 성경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듯이 이 묵시록은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저자는 구체적인 일곱 교회를 들어 말하면서도 일곱이라는 숫자를 한정적인 의미보다는 완전한 것, 모든 의미하는 상징으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에페소 교회, 스미르나 교회 등에 보낸 편지는 구체적인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지만 편지의 끝에 가서 보편적인 교회에 해당되는 것처럼 바꾸어주고 있다.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광고주를 찾습니다


(이어서 간지에~)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3월 24일	김진섭 야고보	조정한 제랄드	이재인 베로니카	이원지 베네딕타	신혜정 소화데레사	박승민 국민준	조완준 한채희	진문자 백이백 이정현 이지훈 민완준 민덕미 조리디아 김영희
3월 31일	차지욱 안토니오	김호겸 아우구스티노	이경자 울리안나	한창희 바오로	정유진 권솔시아	이규완 이은경	김가연 이미진	이지훈 홍민철 양미숙 백승훈 김은희 민재인 박신희 백이백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오늘 11시에 아래성당에서 연령회 주관으로
고 이준석 님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 **오늘**은 불우이웃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경애원 후원금**은 다미아노 홀 입구에서 받습니다.

➤ **사목회의**가 2층 컨퍼런스 룸에서 11시 15분에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3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27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오후 1시30분~2시50분	

➤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 시작 및 주관단체 : 오전 9시, 윗 성당

오늘	청년회
3/31	학부모회/예수성가정회
4/7	울뜨레아
4/14	성령기도회/양업회

➤ 2019년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일시 및 장소 : 4월 6일(토) 오전 11시, 아래성당

☆4월 꾸리아 정기 모임도 함께 합니다.

➤ 기도모임에 초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코리안 컨퍼런스룸

주제 : 남북통일, 한인 공동체, 개인 어려움

많은 분들이, 남북통일, 한인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어려움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 미동북부 여성 제37차 꾸르실료 교육피정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일 시 : 4/25 ~ 28일(3박 4일)

장 소 : 뉴저지 뉴튼 수도원

주 관 : 동북부 울뜨레아 사무국(지도: 박홍식 신부)

문 의 : 신부님, 김승애 클라라(봉사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 순종, 사랑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그분과의 귀한 만남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단 한번 만 주어지는
교육피정입니다.

여성 꾸르실료는 매년 4월, 남성은 10월에 각각 있습니다.

➤ 청년 성서모임 봄 학기 그룹원 모집

청년 성서모임에서 새로운 학기에 성서모임을 함께할 그룹
원을 모집 중입니다.

성서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나눔을 하는 신앙생활 프로그램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반을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 <https://goo.gl/forms/aZBlrwegE7iiYOEL2>

첫 모임 : 3월 31일 오후 1시

대표 : 양소영 엘리사벳(617.455.2245)

부대표 : 김형미 소화 데레사(929.361.0502)

➤ 청년성가대 <처음처럼> 제3회 성가발표회

청년성가대에서 "LAUDATE DOMINUM"

(부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을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4월 27일(토) 저녁 7시 30분, 윗 성당

이번 프로그램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장르의
성가들과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니 교우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처음처럼 성가대에서 반주자를 찾습니다. 피아노나 오르간
전공자 중 성실하게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단장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제 64차 맞춤형 성령 세미나 참가 안내

일시 : 4월 26일(금) 오전 9시~28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174 Filors Lane, Stony Point, New York 10980)

선착순 45명 / 4월 15일(월) 신청 마감

참가비 : 300불/1인당

신청문의 : 성령기도회나 김영희 안나(347.665.6696)

➤ 제 73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대상 : 부부들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7시~27일(월) 오후 5시

장소 : Double 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ew Jersey

문의 및 신청 : 박기목 알버트, 박민재 아그네스 부부

(646.201.0175 / 646.808.7322)

겨우
로겏 달았어?



최선이였어

...

그랬구나...
물렸어.
미안해!

“성경 맛들이기” - 요한 묵시록(개신교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한다.)

‘묵시’와 ‘계시’의 차이

묵시(默示)와 계시(啓示)는 그리스어 ‘아포칼리피스’의 번역으로서 이 말이 책이름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요한 묵시록에서다. 이 두 단어는 모두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가 나타남’을 의미하지만 그 속뜻을 깊이 새겨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계시라 할 때에는, 하느님의 의도가 삶 가운데 드러남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인 반면 묵시는 특별한 의미로서 마지막 때, 다시 말해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미래의 비밀이 나타남을 뜻한다. 따라서 묵시록과 계시록은 하느님의 계시가 담긴 책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이지만 어느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뜻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을 갖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자 문제는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해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묵시록을 사도 요한의 작품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처음으로 학문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 책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님을 주장한 이는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시오이다. 그는 묵시록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빛, 생명, 진리, 은총’ 등의 용어들이 묵시록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요한묵시록은 사도 요한의 작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집필 장소 및 연대

이 책 1장 9절에서 보면, 요한이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파트모스(현재 터키 영토)로 귀향을 가서 이 작품을 썼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회사가인 에우세비오는 요한이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 간 때를 로마황제 도미티아누스 14년 즉 서기 95년경으로 보나, 이보다 더 앞당겨 예루살렘 성전파괴사건이 있었던 서기 70년(베스파시오 황제 치하)으로 보는 설도 있다. 그러나 묵시문학의 특징에는, 종교사의 큰 사건과 저자의 신비스런 체험을 일치시키기 위해 저자가 자신의 저작연대를 인위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저작연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묵시록에 나타나는 정치적 상황을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와 교회와의 관계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과는 판이하여 상당히 깊은 적대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극에 달했던 황제숭배사상과 연관을 지어 생각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묵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재임 말년인 서기 95년경에 쓰인 것인데 저자는 자신의 작품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었던 베스파시오 황제 치하에서 쓰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어집니다)

◆ 미 사 봉 헌

● 연미사	봉헌
이준석	김종화필립보, 울뜨레아
허갑중 로버트 벨라민	허정운
이영우, 이태모	이상홍 스테파노
● 생미사	익명
한창희 바오로	김성중, 박기목 부부
표해심 카타리나	김현정 글라라
이경동 탈렐레오	유인경 아셀라
이신환 마르코, 방순예 데레사	유인경 아셀라
유민규	김기레 레지나
손대심 마리아	채봉석 그레고리
채윤아 올리비아	이경자 올리안나
송임순 안젤라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본당 레지오 단원들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이병국 요한, 이종환 T.아퀴나스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최병화 로레타, 김옥지 아가다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4,645
감사헌금	\$ 100
합 계	\$ 4,745

교무금 :
 김성중 장목석 손혜숙 문예하 김제이슨 백인철
 김인숙 김민정 안영옥 이남석 강혜숙 채봉석
 백이백 김지예 이경수 김영숙

감사헌금 :
 강혜숙